

# 南窓隨筆

東天紅

나는 거슬은이世上에 나면서刹那도 머무르지 안코 生活曲線에 광대. 줄라는 貌樣으로 올라서 서운지가 벌써二十四個星霜동안이다. 요말을 한몸에 東嶺으로 솟아 西山에 지는 저-太陽은 선색 치듯 年光을 더럽々々 처먹기고 扶桑에서서 成池에 들어가는 저-明月은 賣笑婦의 粉粧으로 老像의 빛을 치역々々 칠하여준다. 덕군이나 永生의 希望과 不死의 理想의 좋은 맹남스럼겨 나의 마음을 갈가먹는다. 時計추가 움직이니 歲月은 가느냐. 헤가지고 밤이 되니 人生은 허느냐. 어제 잊든 青春이 오날 업스니 사람은 죽느냐. 太陽은 黑點關係로 冷却하여간다. 處女의 발간마음은 變하여간다. 白衣同胞는 北間島로간다. 世界大衆은 죽임의 무덤으로간다. 人生은 草露다. 世上은 無常하다. 淸淨한 伽藍에서 法師가 綠羅衣上에 紅袈裟를 수하고 獅子榻上에 올라서 廣長舌로 說法을 하다가 慈悲眼을

스르스 감고 住杖子를 집으며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偈頌을 구슬뜨게 읊을새 想像하면 生은 그價値가 서몬싸리 못되고 死는 누어서 역의 기보다 쉬운 못하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地球表面에 居住하는 五色의 人類야. 秋風이 白露을 날리고, 草木이 黃落할際 有主無主 哀魂佛子가 列席한 靈壇앞에서 施食하는 沙門이 振鈴하고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라는 偈頌 읊는 소래를 듣는 감고 至心諦聽하라. 이 偈頌問題에 答案을 答者 千구이나. 이 붙음에는 雄辯家 政治家 文學家 藝術家 英雄 豪傑 將軍 武士 들이 모다 白旗를 揭揚할 것이다. 蟬蟬갓흔 人生이 한 번 죽어지면 黃泉에 속이 되고 北邙山下에 煙氣로 化한다.

極樂世界 紫金蓮臺에 誕生한 사람은 반드시 人間에 타디오를 放送할 것인가 娑婆空中線에 應된 일이 업스니 KRSK(極樂世界) 放送局의 電

氣原動力이 不足한 것인가. 極樂과 娑婆의 距離가 十萬億國土나 되어서 電波가 中間에서 송어지는 까닭인가. 地獄이 있다면 사람 죽인능 聲광이 락은 능 거진 말한능 들을 모다 逮捕해서 閻羅王과 十大判官의 公正한 判決이 잇슬런만 判決言渡는 傍聽한 者 업스니 千金不死와 百金不刑의 法則을 適用한인가 南方化主 大願本尊 地藏菩薩을 成佛케한인가. 大體 曉露갓흔 人生이 죽으면 어데로가는가. 금박죽은 사람귀에 大砲를 노아도 聽而不聞하는 데 그 총장귀에다 어데로가느냐고 알만 되푸리해 부르지 것자 아모 效果가 업슬 것이다.

이宇宙에 잇는 全人類는 臘月晦日이 되면 涅槃 鐘이 멍-멍 울린다. 이 鐘이 울니는 날에는 娑婆界

二九五五・八・四日 興國寺一爐香室南窓에서

# 農村에 잇는 小弟의 歌

化竹

小弟야! 蕭瑟한 金風이 階前에 梧葉을 울니고 물포 吹다 葦々한 別레 소리 요란하니 가을귀운이 完全이 도모이는구나! 하늘이 새파라케 靄 없이 농하 짓고 蘆

花가 하얗케 愁心에 브치울때 괴력이 盈이 울며 月色을 차고 가니 가을 情景이 哀愁로 가득하다. 綠陰이 지러 芬芳草에 이슬이 맺치고 野外에 禾穀은 錦波가 萬頃으로